

송현숙 개인전

Song Hyun-Sook Solo Exhibition
breath and brushstrokes

송현숙
SONG HYUN-SOOK 2014.11.14 - 12.31
breath and brushstrokes
Hakgojae 50 Samcheong-ro, Jongno-gu, Seoul, Korea www.hakgojae.com info@hakgojae.com T +82 2 720 1524-6 F +82 2 720 1527

전시명 : 송현숙 개인전

Song Hyun-Sook Solo Exhibition

일 시 : 2014년 11월 14일(금)-12월 31일(수) 48일간

장 소 : 학교재갤러리 본관

문 의 : 02-720-1524~6

출품작 : 16점

담 당

황유경 (yookyung@hakgojae.com)

보도자료

www.webhard.co.kr (id: hakgojaeart pw: guest)

보도자료 폴더 내

[20141114 - 20141231 송현숙展]

1. 전시 개요

학교재갤러리는 2014년 11월 14일부터 12월 31일까지 재독작가 송현숙(63)의 개인전을 선보인다. 송현숙 작가는 1970년대 독일에 파독 보조 간호사로 파견되어 독일과 인연을 맺고 간호사 생활 4년 만에 함부르크 미술대학에 진학하면서 본격적으로 작업을 시작했다.

송현숙의 회화는 서양 물감인 템페라와 캔버스를 사용하고, 한국의 귀얄 붓으로 단숨에 긋는 한 획에 담긴 고요함과 정갈함, 그리고 이를 통해 탄생하는 이성적 제목처럼 작가는 양면적인 요소를 조화시킨다. 송현숙은 작품을 통해 붓질과 형상, 색감으로 '그리움'의 감정을 고스란히 전달한다. 아른거리는 고향 땅과 이국의 낯섦, 슬픔과 갈등, 사회성, 시대의식의 잔상이 캔버스에 담겨 있다. 2008년 이후 한국에서 6년 만에 다시 열리는 이번 전시에는 몇 번의 붓 놀림으로 이제는 기억의 한편에 사라져 버린 향아리 그림을 비롯해 헛대에 걸린 하얀 천, 장독 등의 이미지를 소재로 한 송현숙의 신작 16점이 전시된다.

2. 전시 구성

1.



불질의 다이어그램 (4월16일 세월호 비극을 생각하며 그림), 2014, Tempera on canvas, 170x240cm

송현숙의 다른 작품들이 '획 수'로부터 작품명이 붙여진 반면, <불질의 다이어그램>은 조금 다른 유형의 이름을 지니고 있다.

작가는 이번 전시에 일상적으로 다루는 주제 외에 개인적으로 의미가 깊었던 순간을 담아낸 작업을 포함시켰다. <불질의 다이어그램>은 지난 봄, 수백 명의 목숨을 앗아간 세월호 침몰 사고에서 영감을 받아 그린 작품이다. 짙은 검정 바탕의 캔버스는 고요함과 적막함 속에 침전되며 사라지는 세월호와 희생자들의 넋을 담아내고 있다. 어둠 속으로 사라지며 무한 반복되는 불의 움직임 속에, 깊고 검은 바다 속 울부짖는 탑승객들의 외침이 뒤엉켜 있다. 이와 연결된 작품 <8획>은 이러한 절규를 매듭지으려 한다.

2.



5획, 2013, Tempera on canvas, 150x200cm

제목에 명시되어 있듯, 작가는 다섯 개의 획으로 단순하면서 복잡한 이미지를 완성시켰다. 두 말뚝과 막대를 잇는 명주 천은 우리 사회의 관계향을 의미한다. 이것은 작가에게는 오랫동안 떨어져 있었던 작가와 조국의 관계일 수도 있고, 관객에게는 자신이 처한 인간관계 속 상황 일 수도 있다. 두 막대 사이에 늘어지지 않고 수평으로 뻗은 명주 천은 그 두 대상의 '연결된 관계'를 의미한다.

또한 송현숙의 '한 획을 단숨에 긋는 작업'은 순간에 온몸을 다한 결과인 동시에 절제된 정신활동이다. 단숨에 그린다고 하지만 결코 단순하지 않다. 작가의 한 획은 고요함 속에 서예의 필력이 보여주는 에너지를 포함한다. 작가의 손과 몸의 움직임은 템페라 물감의 붓 자국으로 뚜렷한 자취를 남긴다. 붓질은 탄력이 넘치는 데 반해, 바탕의 화면은 차분하게 가라앉아 있다. 이는 한국의 자연미를 질게 품기며 무한한 깊이를 간직한다.

3.



7획 뒤에 인물, 2013, Tempera on canvas, 150x170cm

송현숙 작가는 또한 우리 시대 여인상을 캔버스에 담아냈다. 화면의 반 이상을 덮고 있는 하얀 베일 뒤에 숨겨진 여인을 통해 우리 사회의 어머니와 여성들이 지닌 무거운 책임감과 짐을 그려냈다. 늘어뜨린 천 뒤의 여인의 초상에서 힘든 세월을 이겨낸 그녀의 속마음이 오롯이 드러난다. 여인이 힘겹게 발을 내딛는 자리에는 그녀의 발자취를 그대로 보여주는 듯 고무신이 정갈하게 놓여 있다.

3. 전시 서문

송현숙: 덧없음의 미학

로렌스 린더

송현숙 작가가 수십 년간의 작가 생활을 해오면서 그려온 소재는 열두 가지가 채 되지 않는다. 그가 그려온 소재는 모두 작가의 뿌리인 한국, 한국의 전통과 과거에서 가져 온 것으로 한국의 토속적 아름다움을 담고 있는 장독, 전통 가옥의 귀퉁이, 두 기둥을 연결해주는 소박한 명주 등이다. 비아 셀민스(Vija Celmins)가 바다와 밤하늘을 반복하여 그렸듯이, 송현숙 작가 또한 각각의 토속적 이미지를 여러 번 반복해서 그려왔으며, 이를 통해 가장 친숙한 것이 때로는 영원토록 새롭게 탈바꿈 할 수 있게 하는 방식을 강화 시켰다. 그는 빼 같은 하얀색, 불 같은 붉은색, 꽃가루 같은 노란색과 같이 제한적이지만 강렬한 색상을 사용해 빛나는 향아리의 이미지를 몇 번이고 화폭에 옮겨왔다.

작가가 그린 가장 단순하면서도 복잡하고 어려운 이미지는 명주천으로 연결되어 있는 두 개의 말뚝 그림이다. 이는 피난처의 원초적 형태이며, 새로 솟아난 건축물인데, 이는 두 기둥을 이어주던 명주가 막대로 대체된 작품들을 보면 더 뚜렷하게 드러난다. 송현숙 작가의 최근 작품 중에는 두 개의 말뚝 중에서 하나를 제거한 것이 있다. 하여 그 작품 속의 명주천은 마치 살아 움직이듯 자유의지를 갖고 아득히 먼 곳 너머로 필력이며 날아 갈 것처럼 보인다. 송현숙 작가는 소재가 얼마나 익숙한가와 상관없이, 매번 고도의 집중력을 요하는 화법을 통해 그 주제에 새로이 몰두한다. 그의 모든 작품이 단지 몇 번의 획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획을 어떻게 긋는가는 작품의 성공여부를 판가름 하는 데에 결정적이다. 작가는 매번 이미지를 그려내는데 사용한 획수를 단순히 제목으로 붙이고 있는데, 이는 최소한의 붓놀림이 그의 창작활동에 얼마나 중요한지를 잘 보여주고 있다. 작가는 자신의 작품의 성숙여부를 붓놀림의 미묘함, 명료함 그리고 아름다움을 통해 판단한다. 송현숙 작가에게 있어서 그림을 그리는 것은 신체적이고 정신적이며 영적 행위이다. 그는 복잡한 상념들과 에너지를 정화하여 명상적 평온함과 집중의 상태에 도달하는 것을 수행해왔다. 그에게서 그림을 그리는 행위 자체는 고도의 육체노동이다. 길고 구불구불하게 그어진 획을 보면, 우리는 그의 숨의 길이와 그의 맥박을 느낄 수 있다. 그가 그은 획은 그의 자세에서 나오며, 마치 태극권을 하듯 팔과 다리와 함께 온몸을 조화롭게 움직이면서 생성된 것이다.

송현숙 작가는 원하는 굵기의 획을 원하는 모양으로 그리기 위해 붓에 물감을 얼마나 묻혀야 할지, 붓의 각도를 어떻게 잡아야 할지를 체득했다. 송현숙 작가가 일상적으로 다루는 주제 이외에 개인적으로 의미가 깊었던 순간을 담아낸 것들도 있다. 깊은 어둠을 배경으로 수의를 입고 상여에 누워있는 어머니를 그린 작품이라든지, 또는 수백 명 되는 학생들의 목숨을 앗아간 세월호 참사에서 영감을 받아 그린 작품을 들 수 있다. 근래 들어 작가의 반복되는 주제는 투명한, 흰색의 넓은 획을 화면 가득히 채워 바탕그림에 베일을 씌운 것이다. 위에서부터 아래로 쏟아지는 이 붓 놀림들 사이사이로, 어렴풋이 한복을 입고 있는 여성의 모습을 여기 저기서 볼 수 있다. 그녀가 잠고 있는 지팡이가 이 베일에 닿게 되면 마치 손가락으로 폭포를 만졌을 때와 같은 물의 움직임이 생겨나기도 한다. 어느 한 작품에서는 이 베일이 새끼 호랑이의 발톱으로 찢겨져 있기도 하다. 독일에서 살고 있는 송현숙 작가는 어떻게 해서 지구 반대편에 있는 한국의 전통적 소재들, 그것도 반세기 이전의 시대를 대표하고 있는 것들을 그리게 되었을까? 이는 분명 이 소재들이 작가의 마음을 드러내주기 때문일 것이다. 그의 작품은 그 자체가 스스로 말하고 있으므로, 작가의 마음을 언어로 다시 설명할 필요는 없을 것이다. 그러나 몇 가지 공통적인 성격이 눈에 띄기는 하는 바, 어둠으로부터 빛의 생성, 절제의 흔적, 균형의 성취, 베일의 단절 등을 들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덧없음의 여운을 불러일으킨다는 것이다. 필자의 생각으로 송현숙 작가의 주제는 삶이다. 이 신비하면서도 덧없는 조건, 그토록 자명하게도 현실적으로 보이는 이 조건. 아직은...

4. 작가 약력

송현숙

- 1952 전남 담양 출생. 담양 산골마을에서 어린 시절을 보냄
- 1972 파독 (派獨) 간호원 모집으로 독일로 건너가, 4년간 독일의 병원에서 근무
- 1981 함부르크 미술대학 회화과 졸업
- 1985 독일 학술교류처 (DAAD)장학생으로 광주 전남대 학교 미술대학에서 동양화와 한국미술사 연구
- 1997 기록영화 <회귀> 제작

독일 함부르크에서 거주 및 작업

개인전

- 2014 학교재갤러리, 서울
- 2012 갤러리 디테스하임, 뉴샤텔, 스위스
에드워드 멜링거 갤러리, 홍콩
- 2011 폰뢰퍼갤러리, 함부르크, 독일
베른트루체갤러리, 프리드리히스하펜, 독일
- 2008 학교재갤러리, 서울
- 2006 학교재갤러리, 서울
함부르크 미술협회, 함부르크, 독일
- 2005 폰뢰퍼갤러리 함부르크, 독일
베를린 미술 공간 크로츠베르크; 베타니엔
- 2003 베른트루체 화랑, 프리드리히스하펜, 독일
학교재갤러리, 서울
- 2002 함부르크 아트 아카데미, 함부르크, 독일
- 1999 프리드리히스하펜 미술협회, 프리드리히스하펜, 독일; 스위스
- 1997 베른 미술관의 송현숙 컬렉션, 베른, 스위스
칼 에른스트오스트 하우스 미술관, 프라이베르크
미술협회, 프라이베르크, 독일
- 1996 에드빈샤르트 예술상 수상 초대전, 함부르크 미술관, 함부르크; 금호미술관, 서울
- 1995 베른트루체갤러리, 프리드리히스하펜, 독일
말뚝, 괴팅겐 미술협회전, 괴팅겐, 독일
- 1992 송현숙 소묘전, 베른트 루체갤러리, 프리드리히스하펜, 독일
- 1991 송현숙 소묘전, 프리드리히스하펜 미술협회, 프리드리히스하펜, 독일
- 1990 본 미술협회, 본, 독일
- 1989 함부르크 미술관, 함부르크, 독일
- 1988 불타는 집, 베른 미술관, 베른, 스위스
- 1982 내 마음은 조롱박, 함부르크 미술관; 푸로투젠트갤러리, 함부르크, 독일

단체전

- 2014 코리안 뷰티: 두 개의 자연 전, 국립현대미술관 서울관, 서울
- 2013 기도의 미술, 광주시립미술관, 광주
우먼 인-비트윈: 아시아 여성 아티스트
1984-2012, 도치기 현립 미술관, 우쓰노미야, 일본
- 2012 그리움-동아시아현대미술, 현대미술관, 상하이, 중국
우먼 인-비트윈: 아시아 여성 아티스트
1984-2012, 후쿠오카 아시안 미술관, 후쿠오카, 일본
- 2011 그리움, 한국국제교류재단 문화센터갤러리, 서울
- 2010 정신으로서의 선, 이응노 미술관, 대전
춘추, 학교재갤러리, 서울
- 2008 내 마음의 보물, 서울시립미술관 남서울분관, 서울
감성적인 향해, 포즈난 비엔날레 2008, 포즈난, 폴란드
- 2007 한국미술-여백의 발견, 리움 미술관, 서울
문을 두드리다: 체험의 방, 국제인천여성미술비엔날레, 인천
- 2005 고요함의 멋 동아시아의 현대미술, 모리 미술관, 도쿄
- 2004 가브리엘뮌터 미술상 응모전, 베를린 마틴-그로피우스 박물관, 베를린
- 2003 낮선 세계로부터 광(光) 속으로, 샌프란시스코 아시아 미술관, 샌프란시스코, 미국
- 2002 제 2회 아시아 미술 트리엔날레 후쿠오카 아시아 미술관, 후쿠오카
제 2회 여성미술제, 서울여성플라자 여성사 전시관, 서울
- 1999 창외 안과 밖. 광주 시립미술관, 광주
99 여성미술제, 예술의전당, 서울
- 1998 98 한국 현대미술전-시간, 호암 미술관, 서울
저류(低流)와 배음(培音), 캘리포니아 미술대 학 미술관, 로스앤젤레스, 미국
공격과 상처, 이타바시 미술관 회화전, 도쿄
- 1997 겨울 셀렉션 97, 드로잉 센터, 뉴욕
97 광주비엔날레 특별전 - 삶의 경계-한국 무속, 광주
가브리엘뮌터 미술상 응모전- 독일 거주40인 40세 이상 여성 작가 전, 본 미술관, 본, 독일
- 1994 철기시대, 함부르크 캄프나겔 문화작업장, 함부르크, 독일
- 1993 폭력과 인종차별에 반대하여, 함바허 성(成), 노이슈타트안데어바인슈트라세, 독일
색의 대조, 함부르크 미술관, 함부르크, 독일
- 1991 결프전 반대, 함부르크 미술협회, 함부르크, 독일 칼 포겔 컬렉션, 함부르크
다이히토어할레, 함부르크, 독일
- 1990 예술의 폭탄, 뒤셀도르프 미술관의 현대미술 소장품 전시회, 뒤셀도르프, 독일
- 1986 이브와 미래, 함부르크 미술관, 함부르크, 독일 1984 독일연방공화국의 미술 동향, 뒤셀도르프 미술
협회, 뒤셀도르프, 독일
- 1983 뛰어 넘어라, 예술이여 살아라, 함부르크 미술관, 함부르크, 독일
전쟁과 평화, 브레멘 미술협회, 브레멘, 독일
- 1982 눈 속의 가시, 함부르크 미술주간, 함부르크, 독일
독일 전국 여성화가작품전: 슈페쿨룸, 브레멘 미술협회, 브레멘, 독일

수상 및 기금

- 1996 함부르크시(市) 에드빈샤르프 예술상 수상
- 1995 영화 「내 마음은 조롱박-아주 작은 이야기」로 독일 헤센주(洲) 영화상 수상
- 1991 본 시(市) 예술기금협회 장학금 수여
- 1983 독일 연방 산업협회가 수여하는 회화미술 장려상 수상
- 1982 함부르크 시(市) 조형 예술인을 위한 장학금 수여

소장

- 베른미술관, 베른, 스위스
- 본 미술관, 본, 독일함부르크 미술관, 함부르크, 독일
- 뒤셀도르프 미술관, 뒤셀도르프, 독일
- 금호미술관, 서울국립현대미술관, 과천
- 리움 미술관, 서울
- 광주시립미술관, 광주
- 모리미술관, 일본
- 성신여자대학교 박물관, 서울
- 후쿠오카 아시아 미술관, 후쿠오카, 일본
- 서울시립미술관, 서울
- 경기도미술관, 안산
- 서울 평화 박물관, 서울
- 제주도립미술관 .제주
- 도치기 현립 미술관, 우쓰노미야, 일본
- 라쇼드퐁 미술관, 라쇼드퐁, 스위스